

복구, 올해 '126억 규모' 청년정책 추진한다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조성 목표 일자리·주거 등 5대 전략·40개 과제 자산관리 주치의제 등 신규사업 눈길

광주 복구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머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26억 규모의 정책을 펼친다.

8일 복구에 따르면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2026년 복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4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아이디어도 발굴한다.

또 청년창업 공간 24곳을 무상 제공해 안정적

인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했다. 복구는 올해 상반기 '청년 사회주택' 1개소를 준공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를 도입했다. 금융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통해 자산·부채 관리, 투자 방법, 보험·연금 등 금융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픈아이 돌봄센터 확대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등 청년 가구 지원 정책도 연중 추진한다.

복구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참여 기반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인 복구정장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복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광산구는 최근 구청 1층 '모두의 쉼터'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광주시도시공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광산구지부,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5개 기관·단체와 '장기 기증자·유가족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광산구 제공>

광산구, 전국 첫 '장기기증·유가족 지원' 시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5곳과 MOU

예우 강화·사후 처리·일상 복귀 지원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1층 '모두의 쉼터'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광주시도시공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광산구지부,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5개 기관·단체와 '장기 기증자·유가족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존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합당

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생존 기증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상 생활과 식사를 돕고 우울감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진료비를 지원한다.

뇌사 기증자에게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연계해 장례 절차부터 봉안당 안까지 전 과정의 예우를 강화하고, 영락공원 이용료 감면 절차 간소화를 돕는다.

또한 송고한 선택을 기리기 위한 감사패와 추모 마크도 전달하며, 유가족의 심리 안정을 돕고 기증 이후 상속 등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상담과 법무사 비용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시민대표가 직접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 기증자 유가족의 사례 발표와 장기기증을 실천한 고(故) 방철욱 목사의 자녀 방신욱 교수의 연주가 어우러진 '생명나눔 작은 토크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결정이 외롭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장기기증을 사회가 존중하고 예우하는 공적 책임의 기틀을 세워 현장에 실질적인 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서구, '주택건설공사 우수현장' 선정

안전관리 관련 11월까지 평가

광주 서구가 관내 주택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한 곳을 선정해 표창하는 '주택건설공사 안전현장 선정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처분 중심의 건설 현장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공 중인 관내 주택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구의 정기·수시 현장점검 결과와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현장 1곳을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8개 주택건설공사 현장이 시공 중이며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정기·수시 점검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 수준과 개선 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평가 항목은 ▲현장점검 지적 건수 ▲시정조치대장 운영 여부 ▲시정조치 적기 종결률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여부 ▲일반 건설사고 발생 건수 등이다.

서구는 연말에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현장의 총괄책임자(시공사·감리단)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옥민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건설현장을 발굴·표창해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성기자

남구, '제2기 우리동네 맥가이버' 모집

광주 남구가 현장 중심의 봉사 인력 확대를 위해 '제2기 우리동네 맥가이버'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우리동네 맥가이버는 관내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봉사단으로 각종 기술을 배운 뒤 활동에 나선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규모는 35명 이내로 활동 의지와 책임감이 강하거나, 교육 이수 후 봉사 참여가 가능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서류 심사를 통해 이달 중순께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단원으로 활동할 주민들을 선발한 후 다음달 본격적인 양성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b397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서형우기자

동구 "올해도 미술관·박물관 활성화"

주민 참여형·체험 프로그램 등

최대 400만원...20일까지 접수

광주 동구는 8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미술관·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관내 사립 미술관·박물관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

라 등록된 관내 사립 미술관 또는 박물관이며, 관별로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주민 참여형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획전시, 주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트상품 제작 등 2가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에는 관내 8개 미술관·박물관이 참여해 기획전시 7건, 체험 프로그램 6건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청년작가 공모초대전', '우제길 특별기획전', '마음풍경 Mindscape' 등 각

관의 특성을 살린 기획전과 더불어 '국가무형유산 쪽염색', '조각보로 이어가는 평화와 화합의 세상' 등 주민 참여형으로 총 3천5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에는 광주 전체 사립 등록 미술관 8개 관 중 7개 관이 위치해 있을 만큼 문화·예술 기반 자원이 풍부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민간 문화기반 시설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